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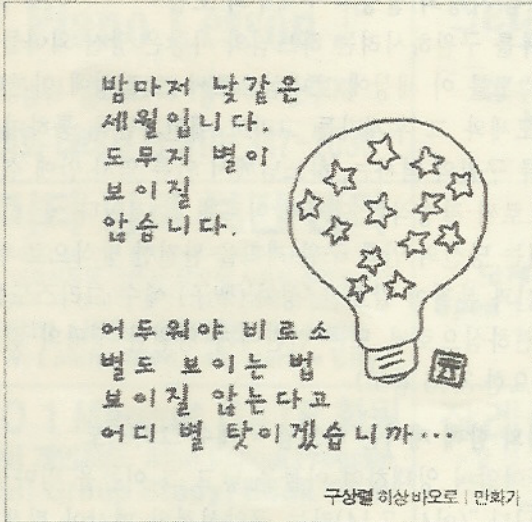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28권 6호 (가해) 2008.1.6

[묵상]



낮에도 하늘에는 별들이 많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태양빛이 더 세고 밝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별빛보다 더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별을 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 그 별이 움직이는 별이라면
당연히 별을 따라 자신을 옮겨야 합니다.
가진 것을 전부 놓고
정든 곳을 떠나야
그 별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1단계 종강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1단계 종강 오후 7:00 오후 8:00 1단계 종강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매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의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허동수 루스와 허정자 레지나 김인숙 마리아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데이빗 김 조지 가보라, 유은영 아네스, 한승일 에릭 신토니 안토니오, 김낙기 바오로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정선결 모니카, 김중돈 스테파노, 김왕기, 손재학 필립 김두철 아브라함, 이규형 곤잘레스, 이종희 요셉 최순임 마리아, 황선애 루시아, 최동열, 이준주
	(생)박재훈 제임스와 박토니 가정, 민미애와 민석준 토마스 오세원 아타나시오 가정, 김마틴과 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황베드로 가정, 박진숙 엘리사벳과 홍정순 세실리아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정열모 미카엘 최상만 사비노와 양숙 안젤라 가정, 원서부부회. 황인협 프란치스코와 경희 크리스티나, 지경수 마태오 가정 김종문 아놀드와 김진희 콜롬바 가정, 정하상 바오로 가정 권순길 세실리아의 대녀들, 김종렬 아가미도 가정 이인숙 베로니카, 이준 베드로, 이진 미카엘 김우용 시몬과 문선 미리암 가정,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60,1-6
화답송	◎하느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하리이다. <전례성가 63, 주님 공현 대축일>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정의를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끝까지 왕하시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왕들 예물을 바치고, 사바와 세바의 임금들이 봉물을 바치리니.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다 조배하며, 만백성이 그이를 섬기리이다.◎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여어빠 여기시고,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리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 (Ephesians)	3,2,3-5-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오 (St.Matthew)	2,1-12
영성제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2	102
봉헌	258	268,220
성체	418	292,295
파견	431	142

9.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계속)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요한 10,14-18)

▶하느님 사랑의 절정 = 구세주의 오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절정에 이른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그 후계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끌어 오신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심으로써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원 계획을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당신과 본질이 같은 ‘성자’(聖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요한 3,16 참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 예수 그리스도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라는 구약성서의 메시아 탄생 예고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구세주이시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성을 잃지 않으시면서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이러한 호칭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친교와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나타낸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며”(요한 10,15),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고”(요한 5,19),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요한 16,15)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요한 10,30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한 14,9 참조)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아빠’(Abba)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친근한 말이다. 이러한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듯 친밀한 애정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

◆(계속 - CBCK 제공)

공평화의 동체인 인류 가족

오늘은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공현 대축일이다. 공현(公顯)이란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드러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유일하게 마태오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것으로서 이방인인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속속들이 비추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밝혀 준다.

동방의 세 박사, 가스팔, 발다살, 멜키엘이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큰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는다. 고대 사람들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래서 새로이 반짝이는 별이 생겨나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믿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상한 별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 별은 유다 지방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갔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정작 헤로데를 비롯한 왕궁 사람들의 눈에는 그 큰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사실 헤로데와 왕궁의 사람들도 그 별을 보았을 것이다. 그 별은 유다에도, 그리고 동방에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현실적인 삶만을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던 헤로데와 그의 측근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볼 여유가 없었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의 안락한 삶에 머무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별을 의미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편안한 현실의 모습이 아닌 무엇인가 더욱 깊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보았고 그 빛에 모든 것을 걸고 길을 떠나 마침내 세상의 구원자이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증거인 별을 보여 주고 계신다. 그러나 이 증거의 표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깨닫고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권력이나 물욕, 이기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징하는 ‘별’은 겸허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 자연과 역사 안에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별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별을 간절히 주님을 찾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 있을 때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인다. 그리고 그 별을 본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러 떠나야 한다.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명동성당 부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래 대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서병교 라파엘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서혜경 세라피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차헌금(매월 첫째 주일)이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2,931단 ☞ 총 합계: 237,680단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축일은 교회력에서 가장 오랜 대축일로써 지금은 매년 1월 첫 주일로 정해 모든 신자들에게 참여 의무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나섰던 동방박사의 용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들처럼 믿음의 길을 용감히 걸어가야겠습니다.

◆ 목요 교리반 개강 및 예비자 모집

- 환영식 : 1월 20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작 : 1월 24일(목) 오후 8시, 2층 교리실
- * 새교리반에 많은 예비자를 인도합시다.

◆ 레지오 마리아 선서식

- 1월 20일(주일) 낮미사 중

◆ 주님 봉헌 축일(2월2일, 토)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

- 초 값(1개) : 제대초 \$15, 개인초 \$15
- 신청마감 : 1월 27일(주일)
- 신청 : 김막달레나(성물부) ☎ 310-539-3377

◆ 배론 청년회 스키 트립

- 1월18일(금)~20일(주일), 빅배어
- 회비 : \$60
- 문의 : 배론 청년회장 강정현 시몬 ☎ 323-899-5581

◎ 축하합니다. ◎

오보나 양(오진 베드로와 매히틸다 부부의 차녀)과 이진호 군의 관면 혼배예식이 1월13일(주일) 낮미사 중에 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 이 커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 풍선아트 배우러 오세요.

풍선을 불고, 묶는 기초방법부터, 다양한 장식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므로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1월 18일(금), 오전 9시30분~낮 12시
- 회비 : \$20
- 신청 : 이영미(파센시아) 강사 ☎ 310-892-9651

◆ 새해(2008년/무자년/가해) 교회달력과 신자수첩 배포

- 본당의 새해 달력을 아직 안 가져간 신자분들은 사무실(또는 성물판매대)에 와서 한 가정당 1부 가져 가세요(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2부).

* 주일학교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겨울방학중

- 개강 : 1월27일(주일)

◆ 주일 학생미사(영어미사) : 주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

◆ 한국학교 오늘 주일(6일) 개강

◆ L.A. 대교구 Fingerprint 스케줄

가톨릭교회내 미성년자에게 봉사하는 성인들(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각 분야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한 Fingerprint 스케줄에 우리 본당이 배정받았습니다.

- 2008년 1월12일(토) : 오전 10시부터
-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예약한 후 빠짐없이 지문을 찍어 주십시오. ☎850-6253 김승희 모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곽효식	구자운	김완태	김충섭
	김태호	모은기	문충한	문항업	민경근	민성원
	배재일	서성용	서홍삼	서희준	엄영희	오명섭
	오영섭	유선식	유호연	육재민	이근태	이민상
	이진행	임연조	정기은	정연영	정완석	정충로
	조경림	채양석	최귀환	한윤진	황지영	
	박제이콥					
합계 : \$8,170						
미사헌금: \$2,843.25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구자운	김충섭	김태호	모은기
	문항업	민경근	배재일	서성용	서홍삼	서희준
	엄영희	오영섭	유선식	육재민	이근태	이민상
	정기은	정연영	정충로	조경림	채양석	최귀환
	황지영	박제이콥				
합계 : \$6,217.46						
감사헌금: 이정훈, 김민수와 진현, 익명 재활용: \$147.46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신자수첩

- 신자수첩은 소공동체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제작된 것인 만큼 본인이 속한 구역(반)의 반장을 통해서 찾아가세요.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결성 앞두고 회원 모집

- 마라톤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을 높여주는 종합운동입니다. 30명 회원의 동호회를 결성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앞으로 정식 트레이너를 초빙하여 LA 마라톤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 ; ☎ 740-1502 김철민 요한

◆ 가톨릭 신자용 상본 콜링(전화)카드 판매

- 가격 : \$20, 유효기간과 연결 수수료가 없는 경제적인 전화카드입니다. 분당 2.7센트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과 통화 가능합니다.
- * 사무실에 비치 중 ☎ 213-385-5564 김안나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 6일 : 사회복지분과 (북어국 \$3)
- 1월 13일 : 하버/카슨 1반 (육개장 \$3)

남가주 소식

◆ '중년기 삶의 변화' 를 위한 피정

- 2008년 1월11일(금) 오후 3시30분~ 13일(일) 오후 1시
- 대상 : 40~50대 여성(선착순 50명)
- 지도 : 김유철 필립보 신부
- 피정비 : \$130 ☎ 951-302-3400, 테메쿨라 꽃동네

◆ 청년들을 위한 프란치스칸 영성 피정

- 1월18일(금) 오후 5시~ 20일(일) 오후 1시
- 장소 : Serra 피정의 집(말리부)
- 주제 : "하느님 당신은 누구시며 저는 무엇입니까?"
- 대상 : 30세 미만의 미혼 남녀, 선착순 25명
- 참가비 : \$150
- 문의 : 김비안네 신부(작은 형제회) ☎ 818-912-0510

◆ L.A. 대교구의 제6회 연례 '생명 존중' 특별 미사

- 낙태아들을 위한 진혼 미사
- 1월19일 오후 6시, 로저 마호니 추기경 집례
- 장소 : L.A. 주교좌 성당
555 W. Temple St. L.A.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선현화 헬레나 533-0454 1/11(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1/12(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1/11(금) 오후 7시30분, 성당 유아실
	4	정중미 클라라 373-1237	정중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철수 사도요한 320-2425 1/12(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우영희 엘리사벳 513-1696 1/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조준제 요셉 963-8171 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1/16(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1/12(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11(금) 오후 7시,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최재은 베드로 997-9006 1/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진애경 올리아나 541-5370 1/18(금) 오후 7시30분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구유의 마지막 등장인물

오늘은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공현 대축일이다. 공현(公顯)이란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다.”는 뜻으로서, 이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드러나심을 의미한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은 3명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와 예물을 드렸다는 마태오복음(마태 2,1-12)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예전에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거룩한 삼왕의 축일’, 또는 ‘삼왕 내조(來朝) 축일’ 등으로도 불렀다. 이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160-220경)가 동방박사들을 왕들로 추정한 데서 유래하며, 6세기경에는 이들 삼왕의 이름을 거론하여 “타다이다, 멜키올, 발뤼토라”라고 불렀다가, 8세기경에는 “카스팔, 멜키올, 발타살”로 고쳐 불렀다. 중요한 것은 이들 박사들, 또는 삼왕의 방문보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구유의 아기를 통하여 이들에게 공현(公顯)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주님 성탄 대축일’보다 ‘주님 공현 대축일’이 먼저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3세기 초까지의 초대교회가 일 년 중 최대의 축일로 기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이며, 그 다음으로 모든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거행한 것이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300년경에 와서 동방교회에 의해 먼저 제정되었다. 그 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313년 이후 서방교회가 ‘불멸의 태양신 탄일’이었던 12월 25일을 ‘예수 성탄 대축일’로 제정하여 지냄으로써 주님성탄과 주님공현을 분리시켰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유 세트에 등장해야 할 인물들이 완성되었다. 마구간 한 가운데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그 곁에 양친이신 마리아와 요셉, 주위에 소, 양 등의 가축들과 그들이 먹을 짚더미, 천장에 매달려 있는 천사들, 막 나가려는 목동들, 그리고 오늘 화려한 왕의 복장으로 각기 황금, 유향, 몰약의 선물을 손에 들고 정중히 등장한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이 그것이다. 세 명의 박사들 중 한 명은 때때로 흑색 피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혹시 여기에 빠진 사람은 없는가? 물론 있다. 바로 나다.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 하여 온 나 자신도 그들 속에 끼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오늘 이 구유의 한편에서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보다 깊이 묵상하고 이를 종합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한다. 오늘 복음이 들려주는 놀라운 동방박사들의 베들레헴 방문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또한 루카복음 1~2장에서와 같이 마태오복음의 전사(前史)에 속하는 대목으로써 신학적 요소를 상당히 담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성서학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할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전사(前史)를 토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물론이고 비신자들까지 크리스마스 구유를 장식하여 동방박사들의 방문사건을 예수성탄 사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적 고무(鼓舞)와 제고(提高)의 기회로 삼아 왔다는 것이다.

오늘 복음말씀은 야훼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던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 유대인의 왕을 찾아보게 하신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언자들의 말을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자기들의 전통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보다는 하늘에 떠오른 별을 보고 왕을 찾아 경배하겠다는 순박한 마음으로 신앙의 긴 여행을 시작했던 3명의 동방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오묘한 신비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왕을 찾아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의 긴 여행을 시작했던 동방 박사들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은 충분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표본이 된다.

오늘과 같이 지도가 없던 그 당시,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밤에만, 그것도 맑은 밤 날씨에만 뜨는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 각기 선물을 들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왕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다는 것,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의 여행은 필시 몹시 지루하고 피곤했을 것이며 온갖 어려움을 만나서 겪어야 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 빨리 왕을 찾아뵙겠다는 일념에 급박하고 들떠 마음의 기쁨이 넘쳐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대목에서 ‘알타반’이라는 “넷째 왕의 전설”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그들은 모두 한가닥 별빛과 그 별이 의미하는 미지의 왕에게 대한 희망과 꿈으로 부풀어 있었으니, 사실상 박사들은 자기들의 남은 인생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미지의 왕에게 내어 걸었던 것이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바로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도 구유의 아기 예수께 우리의 남은 인생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다.

◆ 박상대 마르코 신부